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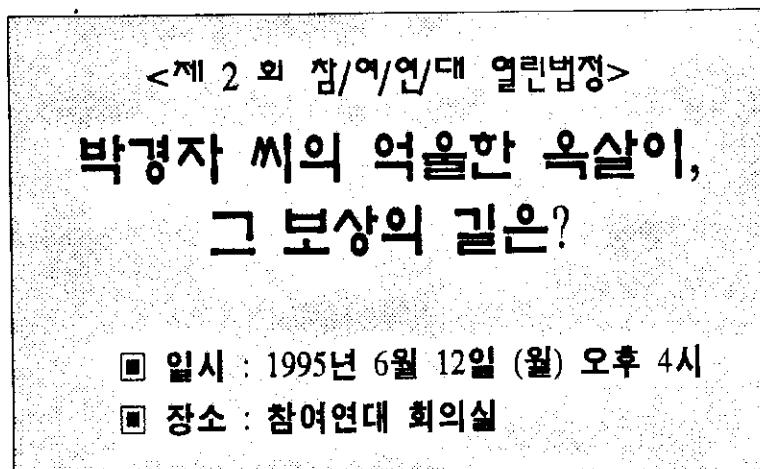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전자통신(하이텔/천리안): SOPA21

수신 : 각 신문사 사회부 담당기자 앞

발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朴恩正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내용 : 제2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보도요청의 건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사법적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억울한 사례를 공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로 제2회 「열린법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오는 6월 12일 (월)에 준비된 '박경자 씨의 억울한 옥살이, 그 보상의 길은?'이라는 제2회 열린법정은 지난 92년 6월 단순한 참고인의 자격이었다가 돌연 피의자로 둔갑되어 사기공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6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경자 씨의 사건을 중심으로 준비되었습니다. 6개월의 구금생활 후 12월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지만 남편과는 별거에 들어가고 아들은 이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지만 이에 대한 보상의 길은 막막하기만 한 현실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힘없는 시민이 사법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과연 무엇이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4. 참여연대에서는 이와 같이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잘못 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 여러분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갖고자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해결하는 「사법제자리 찾기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 아울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열린법정의 기능을 확대하여서 사회적인 의미가 있고 공익적인 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제소를 받고 시민들에게 사건의 판결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6.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995년 6월 1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朴恩正 드림